60년이상건설외길을걸어온지방건설기업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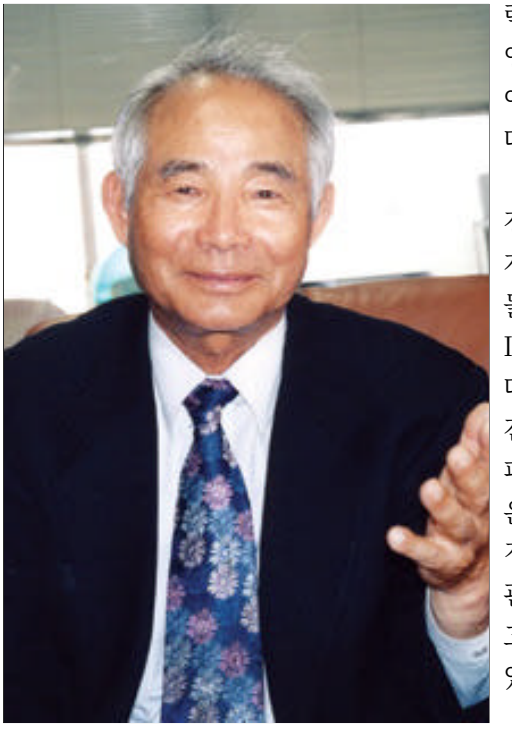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 부회장

"전통과 혁신이 조화 이루는 기업 문화가 성공 경영 가져와"

"60년이상원칙에어긋남없이정도를지켜온 기업 정신이 지금의 남화토건을만들었을뿐만아니라앞으로도튼튼한뿌리가될것입니다."건설외길 43년을 걸어온 최상준 남화토건 부회장은 한국의 건설산업을 일으킨 산증인이자, 61년 간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남화토건의 기업문화를정착시킨장본인이다.

"올곧은 기업 철학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는 것이 정도 경영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최 부회장은 거창한 구호 대신 '근면','성실'을기업철학으로삼고있다.

남화토건특유의건전성에바탕을된성실 경영은 이른바'4無 경영'으로 실현되어왔다. 최부회장은"어음 없는기업,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기업, 저가 투찰을 하지 않는 기업, 탈세하지않는기업"으로 일컬어지는4無경영을"기업부실의빌미가될만한요소를원천차단하는시스템"이라고정의한다.



남화토건은 창립 이래 한 번도 인위적인 인력 해고와 구조조정 없이 다져온 노사간 신뢰와화합을자랑한다. 그는"개인이든기업이든 간에성공을이룬뒤에는반드시위기가오는데, 이위기를극복하지못하면실패한다"며"위기에 처했을 때도 임직원과 공존하기위한경영관을고수해왔다"고 말한다. 실제산업전반에예외없이 몰아쳤던 IMF 사태 당시 남화토건도 수주 물량이 60% 가까이줄어인력 관리의 한계점에이르렀다. 최부회장은그러나 감원을선택하지않고6개월에서1년간사원교육에전념하며위기를돌파하기로했다.

IMF 충격이 가장 컸던 1998년부터 1999년까지남화토건은6개월에서1년단위의직무능력개발교육을실시하였다. 해당기간의 급료와 교육비 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수주보다 임직원 직무 능력 향상에 주력하며어려운시기를무사히넘겼다. 이시기에 다져진 직무 능력과 노사간 신뢰는 이후 경영에 커다란 버팀목으로, 애사심의 근본이되었음은물론이다.

남화토건은 경영 철학은 철저히 고수하되,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여 산업을 주도하는경영혁신에도앞서나가고있다. 최부회장은"건설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매력적인 산업이지만 고비용·저효율의 경영애로요인이많아경쟁력을가지기위한 여러가지방안을늘고민하고모색하고있다"고말한다.

그결과로남화토건은'최고의품질만이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수주와 성장 못지않게경영혁신에도힘써왔다. 1990년대 들어체계적인근무체계를구축하기위해 ISO 인증을 도입하여 표준화집을 마련했다. 또한, 활발한산학협동을통해개발한 건설 기술을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수시로 피드백하여개선해나가고있다. 최부회장은최근에는21세기화두가되고있는지식경영 시스템(KMS)을 도입하여 협력업체 관리와건설노하우시스템을적극활용하고공유하여기업경쟁력의원천으로삼고 있다고설명하였다.

최상준 부회장은"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지만 투명 경영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발생시키는것이더중요하다"며"때문에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역 경제성장과고용증대에도기여함으로써사회 적책임을다해야한다"고강조한다.

이를 위해 남화토건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향학의꿈을이루지못하는학생들을 위해지난1999년유당문화재단을설립하여 장학금과 예술 진흥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있다. 이 외에이남장학회, 남화장학회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 정화 추진 사업, 바르게살기운동등지역환경개선을위해 서도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